

2024
05
—
소그룹교재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1

첫째 주 소그룹 모임 | 본문 베드로전서 1:3-25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새93장(통93장) 예수는 나의 힘ियो
새520장(통25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믿음이 없이는



여는 질문

집에 있는 물품 중에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살면서 어디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본문 이해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1:1-2에도 이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나그네인데,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택함을 받은 나그네이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나그네이고, 순종함과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함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본국이 아닌 타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이 땅은 잠시 살다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 났으니, 우리의 본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최후에 모두가 다 본국인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본국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권면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두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을 나그네로 살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16절)입니다. 또한 17절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니 우리가 나그네

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을 빌어 거룩의 뜻을 헤아리면 거룩은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즉 두려워하는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되게 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며 지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나그네인데 주인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음란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약물 중독되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속이고, 사기 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과 싸웁니다.

헛된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18-19절) 우리입니다. 이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도 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알려줘야 합니다. 모든 것에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본국에서 만납니다. 이 땅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일 뿐입니다.

말씀 속으로

- 믿음의 확실함으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7절)
- 우리는 나그네이고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갈 곳을 알려주는 말씀을 찾아 읽읍시다. (24-25절)

삶 속으로

- 나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나는 그 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암송 구절 | 베드로전서 1:24-25a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자녀와 나눔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니? 나중에 천국에서 가서 그 친구들을 못 만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그 친구들을 위해 무얼 해 줄 수 있을까?

2

둘째 주 소그룹 모임 | 본문 베드로후서 3:1-13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새179장(통167장) 주 예수님의 강림이
새523장(통262장) 어둔 죄악 길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는 질문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있습니까? 혹은 상대방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은 어느 것이 있는 지 서로서로 나눠봅시다.

본문 이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 생활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도래합니다. 또한 최후에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이나, 풍조를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여 예언한 말세의 징조와 너무 흡사합니다. 3절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정욕'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정욕'은 '열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열심을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정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극명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 거짓 교사들의 조롱이 유사합니다.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4절)고 묻고,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며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재림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림의 지연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개의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여, 아직까지 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도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써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신앙인의 태도여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지금 재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입니다. 주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9절) 것입니다. 주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그날은 도적같이 반드시 이릅니다. (10절) 그렇기에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할”(3절)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11-12절) 해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13b절) 그 회복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13a절)

말씀 속으로

-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이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12절)

삶 속으로

- 나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잊어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송 구절 | 베드로후서 3:11b-12a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녀와 나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3

셋째 주 소그룹 모임 | 본문 요한계시록 5:1-14

환난 없는 세상에서 메마른 눈물샘



새539장(통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새357장(통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들고 지쳐(너는 내 아들이라)

여는 질문

최근에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일과 이유로 우셨습니까?

본문 이해

요한계시록은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초대 교회 성도들이 고통 속에 흘렸던 눈물이 스며들고, 저들의 절규가 들립니다.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마다 눈물 방울이 거센 빗줄기 되어 흐릅니다.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버틸 수 있게 해 준 삶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차례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7장 17절에서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삶을 버티게 해 주는 유일한 소망되시는 예수님께서 저들의 눈에 눈물을 다 닦아 주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게 해 주신다고 하시니 그 말씀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으리라 여겨집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읽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혹은 듣다가 눈물을 흘리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기억이 난다면 왜 눈물이 흘렸는지 기억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느껴졌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마음에 와닿았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만나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울컥 눈물을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울었습니다. (4절)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와는 너무 다릅니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4절)했기에 요한 사도는 크게 울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동료들이 당하는 고난을 끊을 이가 없는 것을 보고는 크게 운 것입니다. 인봉 된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지면,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아무도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는 것은 요한 사도에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니 크게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초대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겪어야 했던 환난이나 핍박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눈

물샘이 말라버렸습니다. 고난이 없으니 환난이 없으니 핍박하는 자가 없으니,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아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 눈물샘에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찬송가를 불러도 소리는 내지만 마음을 담아 찬송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요한 사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아픔의 현실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초대 교회 성도들의 무기는 바로 눈물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는 환난이나 핍박은 없지만,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서 치욕을 당하는 현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 앞에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물로 침상을 적실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바로,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내실 어린양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성령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성령께서 오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메마른 우리의 삶에 눈물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메마른 눈물샘에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 요한 사도가 두루마리의 인을 떼자 자가 없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본문은 요한 사도에게 두루마리의 인을 떼자가 있음을 알려주는데 그분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5-6, 9절)

삶 속으로

-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넘치도록 사랑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암송 구절 | 요한계시록 5:4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녀와 나눔

속상해서 울거나 화가나서 우는 거 말고 친구의 아픔을 보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니? 있다면, 그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4

넷째 주 소그룹 모임 | 본문 요한계시록 14:1-20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하며 구원을 감사하라



새15장(통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새276장(통334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여호와께 돌아가자(Love Never Fails)

여는 질문

죽는 날이 예고되어 그 날을 정확히 알면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본문 이해

오늘의본문 요한계시록 14장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장면, 두 결국을 맞이하는 대상을 함께 그립니다. 즉, 한쪽에는 어린양이 서 계시고 십사만 사천이 승리와 환호의 찬양을 부릅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아 계시며, 그에 의하여 무서운 재앙을 맞이하는 세상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 재앙의 모습은 끔찍하기 까지 합니다.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고 그 거둔 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을 때, 틀에서 피가 나서 말골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집니다. 1,600스타디온은 32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는 실제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문자로 볼 것이 아닐, 하나님의 심판의 맹렬함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재앙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재앙을 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이미 경험했고, 이미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이미 승리를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부르심의 자리는 악을 정복하고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대열에서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승리가 주어 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누려야 할 승리는 현실의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도 악을 정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현재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을 자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받을 심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받을 심판, 지옥의 형벌을 생각할 때, 구원자이신 어린양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물밀듯 밀려오게 됩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느끼며 경험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당할 심판을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권태기에 접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를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배 후에 아무런 마음

에 가책이 없이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세상의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나눕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듯이, 거기에 진리가 있는 듯이 몰두합니다. 찬양을 불러도 입만 벅긔하던지, 아무런 감동과 감정 없이 부릅니다. 기도는 잘하지도 않지만, 기도의 시간의 주어져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어가는 자신의 아이를 보면서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 이야기, 주님의 구원 이야기,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생의 이야기들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들이 진부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감격으로 누리는 삶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 은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리의 메시지가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생기 없고 감동이 사라진 삶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생각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포도 추수의 장면은 주님 없는 인생들이 맞이하게 될 비참한 운명이 어떠한지를 그림으로 보는 듯 묘사해 줍니다. 이러한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마음에 깊이 내면화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주님 안에 있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확인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최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진짜 죽음이 판가를 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음란과 성적인 유혹에 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Coram Deo) 의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다 누리지 못해도, 지금 다 가지지 못해도, 지금 힘들어도, 지금 아파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성령께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모진 핍박과 고난을 견디는 이들에게 성령이 주는 위로의 메시지를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도, 내가 겪는 어떤 고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말씀 속으로

- 십사만 사천이 보좌 앞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이 십사만 사천에 대해 어떻게 묘사합니까? (4-5절)

삶 속으로

- 하나님의 사랑, 은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리의 메시지가 심장을 요동치게 합니까? 그렇다면 요동치는 심장을 부여잡고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라면 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암송 구절 | 요한계시록 14:13b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녀와 나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너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니?

We Are Strangers on Earth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Whosoever Heareth, Shout, Shout the Sound
Without Faith



Opening Discussion

Do you have cherished and precious items in your home? Where do you put most of your energy and focus all your attention on right now in your life?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We are sojourners (strangers) on earth. 1 Peter 1:1-2 says: "Peter, the Apostle of Jesus Christ, writes to you to the strangers scattered in Pontus, Galatia, Cappadocia, Asia, and Bithynia, chosen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the Father, sanctified by the Holy Spirit, for obedience and sprinkling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Grace and peace be multiplied unto you." A stranger chosen according to God's will, sanctified by the Holy Spirit, chosen for obedience and sprinkled with the blood of Jesus.

A stranger is a person who lives in a foreign country other than their own country. In other words, earth is a place to live for a while. We are all born of God, and our home country is the Kingdom of God. So don't sit down on this earth. All people were created by God. God's will for all people is for them to live in the Kingdom of God, which is their home country in the end. In other words, all people believe in Jesus, who is the living hope of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This is because, as it is written in verse 9, "The end of faith is the salvation of souls." We receive the salvation of our souls through faith in Jesus. Those who have received salvation of their souls are those who have citizenship of God's kingdom. Apostle Peter wrote a letter to comfort and exhort the saints who were suffering for the sake of their faith. He wrote the letter as a request to keep the faith in any hardship. But the saying that "the end of faith is the salvation of the soul" applies to all people. First of all, it applies not only to those of us who confess Jesus as our Savior, but also to all those who will confess Jesus as their Savior. Our mission is to preach the gospel so that all people can believe in Jesus and be saved. This is because God's will is for everyone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Also, when we live on this earth as strangers, God's will for us is, "Be holy, for I am holy" (v. 16). Verse 17 also tells us that we call the Father the One who judges every man according to his

works, not by outward appearances, and that we should be in fear when we are strangers. We know all too well that to be holy means to be set apart. In the words of Apostle Peter, if we discern the meaning of holiness, holiness is to live in fear. In other words, fear sets us apart from the world. Who should we be afraid of? It's God. As strangers on this earth, we must live in fear of God in order to be holy. Not only us believers, but all people in the world should live in fear of God. But people today, including Christians, do not fear God. Because they do not fear God, they are strangers, but they live as masters. They indulge in fornication, they indulge in alcohol, they become addicted to drugs, they deceive in the church, they cheat, they are jealous, and they fight with their brothers and sisters and neighbors in the faith.

We have been redeemed by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from our vain deeds (vv. 18–19). We must not forget this. The world needs to know this. We need to let the world know. We must be holy in all things. We must live in the fear of God. Let us love our brothers and sisters, but let us love them fervently in our hearts. If you love them, you will preach. Let us preach the gospel of the Lord to all and meet them in our own country. Don't sit on the ground. We are only strangers on this earth.



Into the Word

- What are the benefits of certainty of faith? (v. 7)
- Let's find and read the words that tell us we are strangers and that this earth is a place to stay only for a while. (vv. 24–25)



Into our life

- Think of people with whom you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If there is someone who does not yet believe in Jesus, what can you do for them?



Memory Verse | 1 Peter 1:24–25a

All flesh is like grass and all its glory like the flower of grass.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 falls, but the word of the Lord remains forever.



Sharing with your children

Do you have any friends who don't know or believe in Jesus yet? How do you think you would feel if you went to heaven and didn't see them? What can you do for them?

2

The Secon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2 Peter 3:1-13**

The Lord Surely Will Come Again



O Turn Ye
Life at Best is Very Brief
Till the Lord Come Back to the World



Opening Discussion

Do you say or do anything habitually? Or share with each other what the other person habitually says or does.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What do the recipients of 2 Peter need to remember? It is the fact that the Lord's return is the word of God's promise. I want you to be honest and ask yourself: "Do I believe in the Lord's return? Do I believe in God's judgment?" This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in our life of faith. The end of the world is coming. The day of the Lord's return is coming. In the end, God judges us according to our deeds.

Look at the world today and look at the trends. It is too similar to the signs of the last days written and prophesied by Apostle Peter. Verse 3 says, "In the last days, mockers will come, and they will walk according to their own lusts, and will mock them." There's one word to focus on and it's "lust." The word "lust" used here means "zeal." But Apostle Peter uses the word "lust" in a negative sense, meaning selfish zeal for one's self. What is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the postmodernism we are passing through? Aren't you living only for yourself? Everything revolves around "me." The people of the world who live in this way ridicule the church and Christians. There is a parallel between the ridicule of the people of the world today and the ridicule of false teachers at the time of the writing of 2 Peter. "Where are you?" he asks. False teachers ask, "Where is the promise of the Lord's coming? (v. 4) The world today asks, "Where is Jesus?" "Where is God?" They mock the church and Christians.

In addition, many Christians live as if the Second Coming will never happen and, therefore, there will be no judgment. However, the delay of the Second Coming is not an element of unbelief toward God, but an opportunity for repentance from God. If we do not believe in the Second Coming of Jesus, if we are not yet able to do righteousness, if we are not living a moral life, then we must strive to respond to God's call to participate in His righteousness and character. That should be the

attitude of believers in line with the will and purpose of God, who is patient toward us. The Lord will surely come again.

If the Second Coming is not happening now, then the Lord's time has not yet arrived. The Lord's will is that "none should perish, but that all should come to repentance" (v. 9). The Lord is waiting for repentance, but that day will surely come like a thief (v. 10). Therefore, instead of "walking according to our own lusts" (v. 3) as we await the Second Coming, we are to "look forward to the coming of the day of God with holy conduct and godliness" (vv. 11–12). For those who long for that day with holy deeds and godliness,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will be revealed in the restoration (v. 13b). That restoration is based on God's sure promises (v. 13a).



Into the Word

- To the Lord one day is like a thousand years, and a thousand years like one day. Why is there a delay in the Lord's promises? (v. 9)
- What will happen on the day of the Lord's return? (v. 10) What must we do to escape this judgment? (vv. 11–12)



Into our life

- What prevents me from believing in or forgetting about the Lord's return and living it out?



Memory Verse | 2 Peter 3:11b–12a

Be in lives of holiness and godliness, waiting for and hastening the coming of the day of God.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en Jesus ascended to heaven, He promised to come back to this world. What do you think will happen when He comes again?

3

The Thir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Revelation 5:1-14**

Dry Eyes; In the World Without Tribulation



Go, Carry Thy Burden to Jesus
Encamped Along the Hills of Light
You Are My Son

Opening Discussion

Have you cried lately? What caused your sorrow?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We cannot read the Book of Revelation without tears. When you read it, you can hear and feel the terror and anguish of the believers. The more you read, the more you resonate with their intense suffering. The only hope that sustained their lives amidst the tribulation was Christ Jesus. Twice in the Book of Revelation, we encounter the articulation of "He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their eyes." Indeed, 7:17 says, "And God will wipe every last tear from their eyes." Also, we find in 21:4 that "He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their eyes, and death will not exist anymore—or mourning, or crying, or pain, for the former things have ceased to exist."

This heartwarming promise gives us hope and joy.

Have you ever shed tears during worship, when you read scriptures, or during the singing of praise? If you've experienced it, do you remember what caused your tears? Believers often shed tears when they are overwhelmed with the assurance of salvation or when they feel the Lord Jesus' grace and mercy. When Jesus comes into our hearts, we are moved, and our eyes start to flow with tears.

In today's chapter, we see John crying. He wasn't just crying, but was weeping (v. 4). But his reason for weeping is different from ours. It says, "I began weeping bitterly because no one was found who was worthy to open the scroll or to look into it." Separating the seals from the scroll signifies God judging the wicked and granting victory to the righteous. Finding no one worthy to break the seals was devastating for John and made him weep.

Today, we do not face the extreme trials and persecutions that the early church community had to endure. Somewhere along the way, our tears have dried up since we don't have to face persecution for what we believe. We stopped feeling the Holy Spirit move within us when we read scripture. We don't sing praises with great thanksgiving.

It is the time when we need the tears of Apostle John. We must remember that the tears were the

weapons keeping their faith. We have to weep over our world for its mockery and disdain for the church. The Lord comes to us when we seek him with deep repentance and sorrow. He is the one who will wipe our tears and break off the seals.

Today is Pentecost. It commemorates the day that the Holy Spirit came, which was promised by Jesus when He ascended. The Holy Spirit gives us tears. When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e are no longer dried up but seek God with all our heart and weep before him for the transformation of our lives. Seek the Holy Spirit to live faithfully in God.



Into the Word

- John wept because there was no one to break off the seals. Then an angel said, there is the Lamb who is worthy, and He will take the seals off. How does the Bible describe Him? (vv. 5–6)



Into our life

- Are you worshiping passionately, loving abundantly, and witnessing boldly to make disciples of Christ?



Memory Verse | Revelation 5:4

And I began to weep loudly because no one was found worthy to open the scroll or to look into it.



Sharing with your children

Instead of crying over your disappointments or anger, have you cried with your friend in sharing their pain? What kind of emotions did you feel?

4

The Fourth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Revelation 14:1–20**

When We Reflect on God's Wrath, We Are Thankful for the Salvation He Offers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Take Me, Oh, My Father, Take Me
Love Never Fails

Opening Discussion

If you knew the exact day of your death, how do you think you would spend the rest of your life?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oday's passage, Revelation 14, vividly contrasts two scenes, depicting the destinies of two groups. On one side, the Lamb stands with 144,000 people singing praises of victory and triumph. On the other side, there is a white cloud; on it, someone like the Son of Man sits, revealing the world facing dreadful calamities. The depiction of these calamities is horrifying. It tells us that a sharp sickle will be harvesting the earth's grapes, throwing them into the great winepress of God's wrath. As the winepress is trodden outside the city, blood flows, reaching up to the horse's bridles for a distance of 1,600 stadia, symbolizing the intensity of God's judgment. This catastrophe is something we must avoid.

God called us to live in victory. Jesus overcame the world; because of that, we have experienced victory and are living in it. Our ultimate call is to stand among those who conquered evil and sing the new song of victory. Victory is given to those who endure patiently and keep their faith. However, the victory we enjoy should also manifest in our daily lives.

How can we live in ultimate victory? It is by giving glory to God and living in reverence of God. It also means living in awareness that the judgment time is near. God will punish the great Babylon and the worshippers of the beast. But those who worshiped the Lamb are rewarded and will experience great joy and reward. What a joy that is.

Meanwhile, let's not forget about the punishment awaiting those outside of the city.

Are you complacent in your spiritual journey? Are you living with Christ, or are you just practicing religion? Do you feel skipping church doesn't matter and having fun in the world interests you

more? Are you more interested in the things of the world and feel no joy when you sing hymns? Is your prayer time nonexistent or very minimal? If so, your thirst for God has been diminishing. God's love, redemption, and eternal life sound mundane, and your heart doesn't long for intimacy with God. The sacrifice of Jesus, His grace,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no longer stir your heart.

If you are in that place, you have to regain your faith. Remember, we don't want to be in the place of God's wrath. Check your heart and your faith. The day of grape harvesting tells us about the judgment day for those who rejected Christ. The judgment day is real, and God has given His grace freely as a gift. Physical death is not the end of life. There is a final judgment day before God's judgment seat, and true death is determined at that time.

Fear God. If you truly fear God, you will resist sexual temptation and hypocrisy. You will fight to resist becoming a slave to money. God-fearing people will set their family and church on the right path. It is to have our heart and faith in place before the face of God (Coram Deo).

Even in times of sickness and poverty, remember the teaching of "Blessed are the dead who die in the Lord" and "The Holy Spirit will give them rest from their labors." Nothing in this world is greater than the comfort of the Lord. Our God is greater than anything in the universe.



Into the Word

- 144,000 people are worshiping God. How does scripture describe these people? (vv. 4–5)



Into our life

- Does the message of God's love, grace, cross, resurrection, and victory make your heartbeat fast? If yes, how did you respond to that reaction? If not, why is your heart not excited?



Memory Verse | Revelation 14:13b

Blessed are the dead who die in the Lord from now on.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en you see people whose actions and words do not match, what do you think about them? What kind of person do you feel you are?